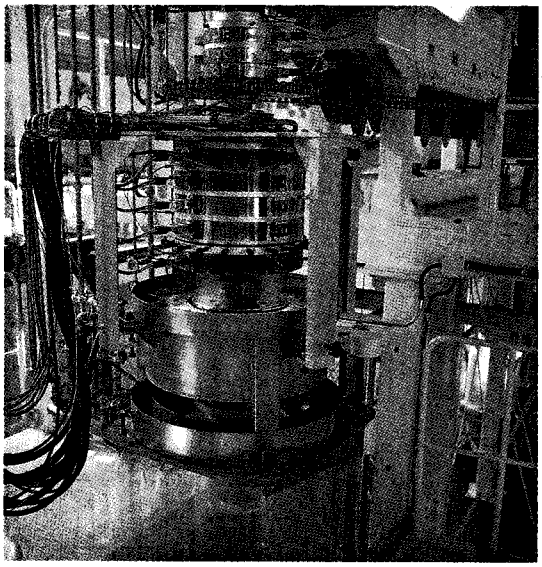
PP수축필름라인 가동, 본격 생산
경쟁력있는 제품개발로 시대에 대응



▲ PP수축필름라인

수축필름 생산, 수입품 대체

매서운 추위와 함께 빠르게 다가온 경제위기가 전 산업계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를 자제하는 가운데 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종업원들과의 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농심그룹 계열사로 포장업계에서는 대기업 규모인 율촌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한규상)에도 이러한 현상이 예외는 아니지만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등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율촌화학 안산 필름공장에서 들리는 새로운 신바람 소리는 얼마 전 도입한 PP수축필름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다.

기자가 방문한 날은 일본 기계메이커의 기술자들과 율촌의 생산 담당자들이 쉼없이 토론을 하며 생산 중이었다.

율촌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초 일본 JSW사로부터 도입한 이 라인은 년간 10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이 2200mm나 된다.

현장에서 만난 생산부 이한승 차장은 이번 라인 도입에서부터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라인도입 이전 이미 국내의 시장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해 온 장본인으로 이번에 율촌이 수축필름을 생산함으로써 시장이 수입대체량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축필름의 주용도는 용기라면인데 한국의 라면시장은 용기면의 고급화 경향과 시장의 꾸준한 증가로 용기면의 상대적인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축필름의 주용도인 용기면 및 앨범용의 경우 계절별 사용량 편차가 심하여 수요·공급 균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밝히는 이 차장은 국내 수출필름의 년간 캡파는 5천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년간 사용량은 약 2천7백톤정도로 국내 제조업체 캡파의 약 55%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율촌이 수축필름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국내 품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내수 수축필름 중 용기포장필름의 경우 필름두께편차가 매우 심하고 MD/TD의 균형편차가 심하며 용기수축 후 시

판시 필름의 수출을 Relaxation현상에 의한 외관변경으로 포장상태가 나쁘고 Bar - coder scanning이 용이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관불량, 커팅불량으로 재작업 로스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한다.

앨범포장의 경우는 대부분 외국의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수출시 수송 중의 포장지 파열, 내한성에 따른 PP필름의 사용 불가 등으로 가격이 비싼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업체가 원가부담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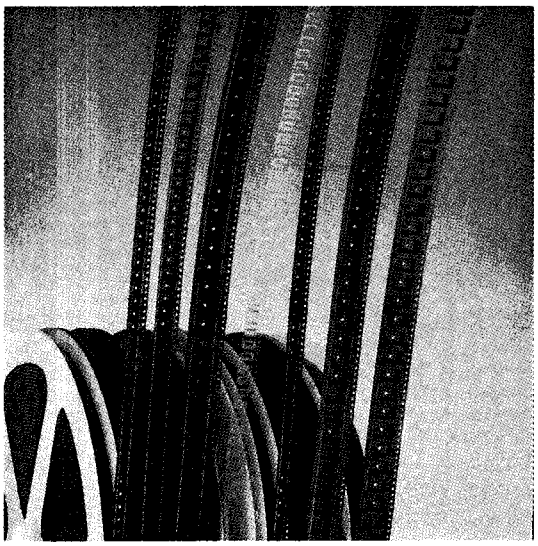
'ADWRAP YN'으로 시판

'ADWRAP YN'이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게 될 율촌의 PP수축필름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수축력과 수축률 사이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뛰어난 평활성과 hot slip성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며 mult pack 및 터널을 통과하는 케이스포장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기면, 요구르트, 우유 등 식품류와 문구류, 장난감, 잡지 등 비식품류로 나눌 수 있다.

〔표 1〕 율촌 수축필름의 물성

Specifications		Unit	Value	
			13μ	15μ
Tensile sterength		kg/㎟	14.80	15.00
Tensile elongation		%	150	150
Tear strength		g	6.0	6.5
Gloss		%	93	93
WVTR		g/㎡ · 24hr	18	16
Haze		%	2.0	2.0
Stiffness		g	0.024	0.024
C.O.F(Film/Film)		%	0.25	0.25
Heat shrinkage	100℃	%	17	15
	110℃		30	28
	120℃		45	42
	130℃		54	52



▲ *전자부품 포장용도로 사용되는 캐리어테이프*

수축필름 라인과 필름공장을 돌며 설명을 맡은 홍건화 대리는 필름의 품질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바쁜 일정 속에서도 라미네이트튜브 생산라인과 BOPP라인, 캐리어테이프 포장파트를 안내했다.

캐리어테이프 개발

율촌은 포장용필름 외에도 경쟁력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전자부품용 캐리어테이프를 개발, 생산하기도 했다.

3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제품의 시장은 그간 전량 수입되어온 제품으로 율촌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10%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PS나 PVC로 제조 가능한 이 제품은 그간 사용되어 오던 벌크타입, 튜브타입, 트레이타입에 비해 보관, 운송이 용이하고 전자동 시스템에 적합하며 방전효과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율촌은 캐리어테이프와 함께 이것을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는 포장백 4종류를 동시에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많은 수입대체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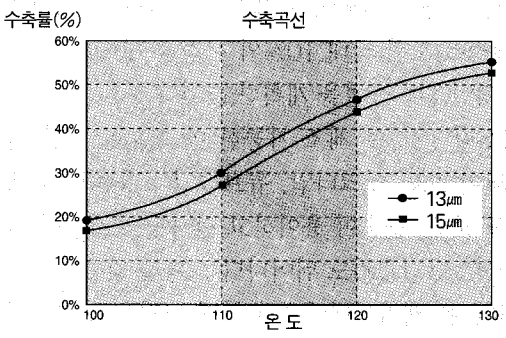
생산을 맡고 있는 고대원 대리는 "2천년대 캐리어 테이프시장은 약 3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미 유수의 전자회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제품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적극 대체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라며 전자회사들도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적극 수용해 주어야 하는데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미네이트 튜브 생산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 대리는 생산라인을 소개하며 율촌의 라미네이트 튜브는 특수레진으로 7겹이상 적층된 시트상태이며 보향성, 가스배리어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특수 UV인쇄가 특징이라고 자랑했다.

이 제품은 치약, 화장품, 식품, 접착제 등의 포장재이며 율촌이 고수하고 있는 독특한 품목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주 생산품목인 BOPP필름을 비롯해 라벨용 OPS필름, 캐리어테이프, 라미네이트 튜브 등과 연포장인쇄에 이르기까지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율촌은 이번 수축필름 생산으로 또한번의 변신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국내제품의 품질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표 2〕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곡선



▲ 라미네이트 생산라인

ISO 9002 인증 획득

더욱이 최근에는 ISO9002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과 운영면에서 결실을 보기도 했다. 노르웨이 다국적 기업인 DET NORSKE VERITAS사로부터 연포장재 및 필름부문에 대해 인증을 획득하고 업무의 체계화를 통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게 된 율촌은 앞으로도 노력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풍요롭게, 아름답게, 깨끗하게'라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율촌은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닌 세계 속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장들사이로 벌써 태양은 빨갛게 주위를 물들여 버린 시간인데도 공장내부는 아직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다.

기자는 물건을 출하하고 돌아오는 대형트럭의 운전자들의 뿌듯해 하는 얼굴과, 라인에 서서 생산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며 경제위기는 잊은 채 한동안 서 있었다. ko

이선하 기자